

F1 위약금 협상 장기 레이스



전남도·FOM, 1년 6개월간 진척 못보고 기존 입장 되풀이

법적 분쟁 양측 모두 부담

전남도, F1조직 축소할 듯

F1 대회 위약금 협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F1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위약금 규모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부담이 커 지리한 협상만 계속하고 있다.

21일 F1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최권료 협상 문제로 대회가 취소된 뒤 민선 6기 들어 2015·2016년 2년 연속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민선 6기 들어 F1대회를 중단한 뒤 FOM과 2015년 2월 영국에서 첫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이후 1년 6개월여 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F1조직위는 계약서상 위약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을 계속 제시중이고, FOM은 1년치 개최권료

(43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도 3차례 서신을 주고 받았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는데다, 비용만 들뿐 양측 모두 전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올해 FOM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예산 3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며 “(FOM이) 법정으로 문제를 이끌고 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F1조직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된 전남도에 설치된 F1대회지원담당관실이 연말까지 조직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팀 단위로 규모를 줄여 실·과에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006년 F1대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기업도시와 내 F1지원팀으로 출발했다가 한 때 근무인원이 25명까지 늘어났지만 현재는 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F1과 관련 모두 8752억원을 투입했으며, 4년간 F1 개최 및 1년간 임대를 통해 1185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비 728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 도비 3447억원 등 4285억원을 투입한 서킷(5.615km), 스탠드(11만8351석) 등 F1 경주장 주요시설과 카트경주장,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은 현재도 사용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시모집 70.5% 역대 최고 ▶7면

책세상 - 나비 탐미기 ▶14·15면



新팔도유람 - 충남 여름축제 ▶18면



KIA 원투펀치 '동반 2000이닝'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전문성 없는 총장에 세계대회 맡길건가”

광주 세계수영 사무총장 공백 장기화 ... 내년 예산 확보 차질

조영택 내정자에 “결자해지 차원 자진사퇴” 목소리 확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공백사태가 2개월째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사무총장 승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영택 내정자에 대해 전문성 미흡 등을 이유로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무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과 지역 정치권 일파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조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등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문체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5월20일 출범했지만, 실무는 총괄할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도 공석이다.

윤장현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조영택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지만, 문체부가 2개월째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사무총장은 조직위원장(윤장현 광주시장)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 뒤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됐다.

문체부는 광주시가 승인을 요구해 온 조 내정자에 대해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인데다 국제대회를 치를만한 전

문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아직까지 조 내정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고, 문체부는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중덕 문체부장관은 이날 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 관리자가 사무총장으로 조속하게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게 약속하겠는가?”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세계수영대회는 한 정치인의 공직을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고, 김 장관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무총장 승인을 가진 문체부가 최종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김

장관이 조 내정자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체육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무총장으로 체육계 관련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청 한 공무원은 “2개월째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아니냐”면서 “조 내정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사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사무총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편성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사무총장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손에 손잡고 인권도시 벨트 구축 2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국내외 인권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세계인권도시포럼

국내외 인권관계자 1천여명 참석

문화전당서 24일까지 열려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이 2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포럼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도시발전, 주거, 환경)’를 주제로 30개국, 62개 도시, 1000여 명의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 NGO,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가치 있는 삶을 살기위한 필요 조건과 정

책과제 등을 논의한다.

주제별 특별회의에 이어 열린 공식 개회식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개회사, 박경서 포럼추진위원장의 환영사, 이은방 시의회 의장의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프닝라운드 테이블에는 박경서 위원장을 좌장으로 윤 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조티 상계라 UN인권사무소 대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행복인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윤 시장은 기초발제에서 “이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을 설명하고 ‘포용과 연대의 인권공동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사람과 자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제주민과 이주민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서울~충남~광주~제주를 잇는 ‘인권도시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복지를 시혜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며 성남시립

의료원 건립, 청년배당 등 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22일 자치단체 인권사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UCLG-CISDP) 회의, 도시정책세션 등을 통해 다양한 인권 담론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환경, 여성, 장애, 사회적경제, 노인, 이주민, 어린이·청소년, 교육정책 등 8개 분야 주제 회의와 함께 포럼 기간 중 문화전당, 인권 테마 프리지페스티벌, 대인시장 ‘별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방문행사도 이어진다.

/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